



고산농협, 금융사기 예방·대포통장 근절 캠페인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식)은 25일 고산면 일원에서 서 대대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본점 및 지점 임직원들은 가두 홍보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며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싱피해 예방법을 홍보했다. 고산농협은 캠페인에서 조합원들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 등을 나누어 주며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송금을 요구 할 경우 100%사기 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것과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본격 추진

남원시가 역점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경로당 및 여가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최소화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그에 따른 피로감과 우울 등 건강이 악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감을 덜기 위해 시는 모든 주민이 가정에서 복지와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검산동 김원고 신임동장, 경로당 소통행정

김제시 검산동 김원고 동장은 지난 22일부터 검산단지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28개 경로당을 순차 방문했다. 김원고 동장은 어르신에게 부인인사와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예방 건강수칙 행동요령 안내,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등 행정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신임 김원고 동장을 반기며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원고 동장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학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30그릇)을 직접 준비해 전달했다.

이날 나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학교동 복지허브화 연합 모금사업'을 통해 모인 모금액을 재원으로 추진되었으며, 협의체는 복지사업으로 삼계탕 나눔을 채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사업을 신청, 선정 받아 나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역과 마을주민이 스스로 재원을 모금하고 스스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서정일 과장 농경 MVP 수상

농협전북본부, 수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제값 받기 앞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본부 서정일 과장이 농협경제지주의 상반기 농경 MVP'에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식은 농협전북본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농경 MVP'는 전국의 농업경제지주 직원들 중 열심히 근무하는 우수 직원을 선발, 업무상 공로 인정에 따른 특별 휴가(숙박 및 휴가비 포함)를 부여해 공정한 보상과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상이다.



대상으로 한 국가별 판촉행사를 실시해 전북 농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추진했다. 또한 전북농협의 100여 명의 산지유통관리자를 육성·지도해 전북 농산물의 산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정일 과장은 "전북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산지유통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윤성 기자

## 전주 만성초 학생들, 혁신동 주민센터에 성금 기탁

전주만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학생대표 이시영)은 25일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혁신동장 이성순)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주만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학생대표 이시영)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세계 무역 기부 축제' 행사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세계 무역 기부 축제'는 6학년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물건 등을 서로 사고 팔며 경제 관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성순 혁신동장은 "학업 중에도 남을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특한 마음에 큰 박수를 보내며, 수익금 120만 원이 1,200만 원의 효과가 되도록 좋은 곳에 뜻있게 사용



하겠다"면서, 만성초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성 기자

## 무주자봉센터, 기후위기 대응 작은 것부터 실천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강우 이사장)가 무주군청 환경 위생과와 '지구기후위기 대응위한 플라스틱 수거 및 세척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온라인 주문 및 택배 포장에 따라 발생되고 있으며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수질오염이나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에 타지 않는다 매립이 어려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물이소플 사용량이 늘고 있어 생산 및 고기능 변질위험도가 높은 식음료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수 밖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로 하고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하고 사립의 열매(임미화 단장) 회원들이 폐기물 분리 및 세척을 하여 병들 보관하여 관내 필요로 하는 식당 농산물 협동조합, 마트, 시장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납품하고 있다. 요즘과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여 재사용하는 플라스틱 위



생안전을 높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강우 이사장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재해 및 질병들이 늘고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정기 감시활동 진행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회장 임종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2일 광역연합회와 함께 송천동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선도회원 15명은 유해환경업소를 방문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계몽과 계도활동을 펼쳤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기 정화활동에 있어 박대식 연합회 사무국장은 "신중 청소년 유해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좀 더 촘촘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근 선도회장은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회원들에게는 스스로 청소년보호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공원 환경정비 활동 실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수옥)는 25일 관내 주민들의 취미인 공원에서 여름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8명은 공원 곳곳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관내 공원을 정비했다. 박수옥 회장은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환경정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부안여고 3학년 2반, 홀몸어르신 추어탕 기탁

부안군은 25일 부안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추어탕(32만 5000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탁물품은 부안여고 3학년 2반 학생들이 지난 13일 유두절을 맞아 증편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마련한 것으로 더욱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으며 군청 사회복지과에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김선영 부안여고 교사는 "이번 추어탕 기탁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홀몸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기부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안숙 사회복지과장은 "무더위에 힘들어하시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안여고 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며 "복지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139호' 오픈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5일 김제시 신풍동에 위치한 중부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39호' 오픈식을 했다.

중부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에게 놀이와 교육, 각종 문화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 건물 내 환경개선이 시급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센터내부에 있는 사물함, 책걸상 등을 교체해 아동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전북은행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과 후원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짐으로써 꿈과 희망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아동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시는 감사드리며, 김제시도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교, 독거노인 선풍기 전달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교에서 지난 22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풍기를 준비해 신풍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선풍기는 마이스터교 학생 서은진 외 9명이 제과제빵, 요구르트를 손수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되었으며 무더운 여름날에 지친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되었다. 마이스터교 교장 김용재는 "늘 여름철 기온이 높다는 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폭염으로 힘든 상황에 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통한 행복을 배우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교는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온정을 나누며 큰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이스터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열사병 등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교와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년 4월 15일 베품사업으로 지역네트워크 연결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